

# 보성, 세계 속 전통예술 ‘판소리 진수’ 선보인다

### 군, 내달 2~4일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외국인부 신설·명창부 시상금 상향 등 체계 개편도

보성군이 전통예술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올해도 경연과 체험 행사 등을 담아 선보인다. 1일 군에 따르면 5월 2~4일 보성군 일원에서 대한민국 대표 전통예술 축제인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외국인부 신설과 명창부 시상금 상향 등 경연

체계 개편과 국제 참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확장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부 부문을 올해 처음 도입, 판소리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공식 경연 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소리 최고 권위 부문인 명창부 대상 시상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전국

소리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연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국내 정상급 국악인의 공연이 펼쳐지며, 판소리 다섯 바탕 체험과 전통문화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관객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판소리와 고수 전 부문에 걸쳐 전국 및 해외 참가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방법 및 세부 일정은 보성문화원(061-850-5892·061-852-2629)에 문의하거나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부 신설과 명창부 시상금 확대를 통해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세계 속 전통예술 축제로 성장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열리는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보성군민의 날, 보성농차마리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일립산절쪽문화행사,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가 함께 개최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 수상한 국창의 특별공연 모습. 사진제공=보성군청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배워요” 광양시는 최근 커뮤니티센터 7층 자원봉사나눔터 교육장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4분의 기적’은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고령화와 급성 심장지 환자 증가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원희 119기적봉사단 회장이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 해남, 북평 영진·신기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

### 101억 투입...5개소 하수관로 12.655km 교체·보수 추진

해남군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와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남읍 등 5개소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해남읍을 비롯해 북평면, 삼산면 일원 등 총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노후 하수관로의 균열과 누수로 인한 악취 발생, 지반 침하,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수와 오수가 혼합 처리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관로를 정비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하수관로 12.655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 지역은 해남읍, 북평면 영진·신기, 삼산면 매정·구림

등으로, 노후 관로 개량과 함께 배수 가능 개선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공사는 구간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 사전 안내, 안전시설 설치, 교통 관리 대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침수 예방과 악취 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질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공사 기간 동안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앞으로도 노후 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나주, ‘에너지 전환 시대’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선도

### 내일 에너지 정책포럼...산·학·연 전문가 참여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신정훈 국회의원, KENTECH 연구원과 함께 3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미래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연설,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산학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차세대 전력망과 인공지능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책 대응과 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개회식에서 전남과학고등학교 출신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에서 활동 중인 황정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그간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 과학관 유치 과정에 기여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함평 ‘2026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성료

### 한국춘란 가치 재조명...대통령상 등 수여

함평군은 최근 ‘춘란이 피어나는 고향, 함평’을 주제로 ‘2026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을 개최했다. 올해 제21회 대회에는 전국 애란인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대표 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하준 함평군수 권한대행이 대회장을 맡고, 이만호 함평난연합회장이 행사를 이끈 가운데, 전국 각지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양위승 씨가 훌륭한 화예부문 ‘황화소심(보름달)’이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화형과 완성도와 품격이 뛰어났다는 평가다. 양위승 씨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진홍수 씨의 ‘주금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은 윤소희 씨의 작품 ‘사계’가 각각 수상했다. 또 우수상은 조동락·윤봉연, 특별우수상은 김현태·정영권, 대회장상



은 신영희·이은권, 함평천지상은 양창섭·고재영, 화순난명품 대회장상은 강현준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출품된 530점 가운데 153점의 우수작이 선정됐으며, 80명의 심사위원과 9명의 자원위원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김택곤 군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대제전은 전국 애란인과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 영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 24일까지 접수...농가 소득 안정 지원

영암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목적이 있다. 군은 올해 뚝섬감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70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가 확인되는 등 농가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벨론, 배, 미나리, 단감, 가물무, 감자, 단호

박, 무화과, 뽕은감, 콩 총 12개 품목이며,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다”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화순군은 최근 군청에서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농공단지협의회, 화순지역 농공단지협의회, 전남경총 안전컨설턴트 등과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화순군청

## 화순,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앞장

### 전남경영자총협회·농공단지협의회 등과 업무협약

화순군은 최근 군청에서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농공단지협의회, 화순지역 농공단지협의회, 전남경총 안전컨설턴트 등과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경영자총협회가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를 목표로 50인 이하 사업장에 안전컨설턴트를 투입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요인 개선을 지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 및 공동사업 추진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위험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위험 요인 개선 △중앙정부·지방

자치단체·경제단체·농공단지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CEO·안전관리자·이주노동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남 전체 참여 사업장 226개소 가운데 74개소의 참여를 끌어내는 등 전년 보다 참여 실적을 거뒀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